

## 선교무용 표현을 위한 외면적 요소의 구조화

### - 표현하는 신체를 중심으로

김수진 명지대 지도교수

#### 요약

현대사회는 자기PR시대라고 하여 자신만의 생각과 개성을 표출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개별성이 짙은 표현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해지고 내가 즐겁고, 좋으면 된다는 편향된 사고로 인하여 표현방식에 대한 객관적 가치기준이나 철학은 부족한 실정이다. 표현한다는 것은 표현하는 주체와 객체 상호간의 자유로운 생명활동으로 내면을 드러내거나,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활동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무용은 표현의욕에 불타오르는 표현내용을 상징적인 표현운동에 의해 구성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고바야시 신지, 2000) 무엇을 표현하느냐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선교무용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가운데 몸짓, 율동 등 무용적인 요소를 포함한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추는 일체의 행위(박순자, 2004) 정확한 목적과 사명의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무용과는 달리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주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역을 벗어나면 선교무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김수진, 2019). 따라서,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따라 모든 사물, 행동, 인간의 노력이 오직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시기 위함이라면, 예술의 실재와 인간성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한스로크 마커의 주장처럼(한스로크 마커, 2011) 선교무용 표현에 대한 근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복음전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교무용 표현에서 형성되는 외면적 요소와 이 외면적 요소를 구조화함으로써 선교무용의 외면적 구조에 대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무용을 표현함에 있어 무용미를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은, 외면적인 표현형식이자 표현운동으로 표현이나 운동은 내면성의 대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표현과 운동이 무용에 존재한다는 것은 무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의 시간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 두

가지 요소는 기본적인 무용의 구성 소재가 된다(고바야시 신지, 2000). 무용의 공간에는 신체적 공간과 무대공간이 존재하며 무용의 시간에는 표현적인 시간과 작품상의 시간이 존재한다. 무용공간은 미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무용시간은 미에 대한 개념보다는 연속성의 성격을 통한 질적 양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일반무용의 외면적 구조를 토대로 선교무용의 외면적 요소를 재정립해본다면 무용을 표현하는 신체, 표현되는 공간, 표현되는 시간으로 정립할 수 있다. 무용의 외면적 구조는 무용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무용의 외면적 구조도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현하는 신체를 중심으로 제한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무용수의 신체와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무용을 하는 무용수들의 몸, 동작, 표현 등 자세, 그리고 그 환경에는 많은 유혹거리가 있다(박순자, 2004). 그러나 본질적으로 표현하는 신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창 1:1)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신체에서 생명이 시작되어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인간의 신체가 없으면 생명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삶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는 생명과 삶을 떼어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종록, 2006). 또한, 무용예술에서의 신체에 대한 인식은 외모, 외관 중심의 무용관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보여지는 측면에서의 소극적인 인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용에서의 신체는 도구이자 목적이며 본질이기에 외관 중심의 심신이원론적 신체적 가치관이 인간미 중심의 심신일원론 가치관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박순자 2009).

선교무용은 아직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가 많아서 대체적으로 믿음의 열정이 분명하고 강한 반면 무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1-2)”는 말씀에 따라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선교무용 표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면적 요소 중 표현하는 신체에 대하여 구명하고 구조화 하고자 한다.

주제어 : 선교무용, 표현, 외면적 요소, 신체, 무용표현

## I. 들어가는 말

현대사회는 자기PR시대라고 하여 자신만의 생각과 개성을 표출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시대가 되었다. 개별성이 짙은 표현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해지고 내가 즐겁고 좋으면 된다는

편향된 사고로 인하여 표현방식에 대한 객관적 가치기준이나 철학은 부족한 실정이다. 표현한다는 것은 표현하는 주체와 객체 상호간의 자유로운 생명활동으로 내면을 드러내거나,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활동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무용은 표현의욕에 불타오르는 표현내용을 상징적인 표현운동에 의해 구성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고바야시 신지, 2000) 무엇을 표현하느냐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용을 표현함에 있어 무용미를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은, 외면적인 표현형식이자 표현운동으로 표현이나 운동은 내면성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표현과 운동이 무용에 존재한다는 것은 무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의 시간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 두 가지 요소는 기본적인 무용의 구성 소재가 된다(고바야시 신지, 2000). 또한, 무용의 공간에는 신체적 공간과 무대공간이 존재하며 무용의 시간에는 표현적인 시간과 작품상의 시간이 존재한다. 무용공간은 미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무용시간은 미에 대한 개념보다는 연속성의 성격을 통한 질적, 양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무용의 외면적 구조는 무용을 표현함에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화하여 무용미를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이를 향유자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선교무용을 하는 무용수들이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가 많아서 대체적으로 믿음의 열정이 분명하고 강한 반면 무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로인해 미처 준비되지 못한 선교 무용수가 메시지와 관련 없는 산만한 움직임이나 지나치게 보여주는 식의 움직임에 치중하여(함성애, 2005) 오히려 예배의 방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 따라서 선교무용수의 표현하는 신체에 대한 사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로마서 12:1)”고 밝히며 우리 신체의 본질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는 말씀에 따라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분별된 선교무용 표현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무용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넓은 무용의 외면적 구조 중 무용을 시각화하기 위해 표현과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공간과 시간을 창출해내는 외면적 요소의 주체인

표현하는 신체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현대사회에서의 신체에 대한 관점, 일반적인 무용예술의 관점에서의 신체, 성경을 통한 신체에 대해서 사유하고 선교무용의 표현을 위한 표현하는 신체에 대해서 정립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II. 현대사회에서의 신체에 대한 관점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신체는 몸, 육체 등의 여러 단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어떠한 개념에서건 우리의 신체는 마음의 상대적 개념에 국한되기 보다는 문화자본, 사회적 계급, 자신의 정체성 등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는 정신보다 오히려 강조되는 경향을 띄게 되면서 신체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정학, 신현군, 2008, 305).

우리의 신체는 나와 타인의 다름을 구별하는 첫 요인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형인 신체를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SNS나 유튜브 등과 같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비단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사람들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대중에게 노출시키면서 자기표현을 한다. 매체를 통한 자기표현은 더욱이 외형적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든다.

여기에서 문화자본으로서의 신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는데 외형적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한국사회에서는 몸짱, 얼짱, 성형, 누드, 다이어트 등의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소비 경향을 추구하게 하였다. 이러한 열풍은 ‘동안(童顔)’에 대한 추구, ‘잘생뽀’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게 되었고 자연적 아름다움보다는 인위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인간의 본질이나 가치, 존엄성보다는 인위적 조작을 통해 인간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며 가치를 정하는 몸값의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었다(김수진 2015, 65). 아무리 상업적인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흥정해서 값을 매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얼짱’, ‘몸짱’ 등의 신조어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신체는 ‘인격체’로서의 몸이 아닌 살과 뼈로 된 몸으로 인식되어 몸 자체에 집착하며 몸을 상품화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다(이종록, 2006, 8).

현대사회에서 신체에 대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몸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 계급에 관계없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의 신체가 상업적인 목적과 결부되면서 소비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는데 인간의 신체라는 단순하고 고정된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적 신분과 계급에 담겨진 자신의 정체성의 본질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이정학, 신현군,

2008, 307). 근대이전까지의 사회에서 우리의 신체는 주로 노동의 수단으로 간주되었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우리의 신체는 점차 노동의 수단이기보다는 자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이정학, 2005).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신체에 대한 관리는 외양에 신경을 쓰고 절제보다는 쾌락주의에 더 가깝다고 Featherstone(1991)는 주장하였다. 이는 포스트모던 이후 현대사회에서 몸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고, 그 원인을 폭발적인 소비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상 소비는 필연적이고 그 소비는 물질과 육체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이정학, 2005). 즉, 인간의 이성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이 이러한 신체론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신체에 대한 전통적 가치인 존재론적, 실존론적 의미가 퇴색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몸철학, 즉 자신의 정체성에 담겨있는 새로운 개념의 신체사상이 대두되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 신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대상과 주체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몸은 자기표현과 성취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

### III. 일반무용관점에서의 신체에 대한 고찰

표현을 하는 신체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무용 표현의 매개로서 인식하고 이해해야 하는 신체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신체에 대한 인식

무용은 소통을 위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인간의 신체를 표현의 수단으로 삼으며, 표현하는 신체는 외면적인 형식과 운동으로 무용을 시각화하였다. 결국 무용은 인간의 신체가 갖는 움직임의 기본매체로 이용하며 움직임의 측면에서 춤은 보다 집중적으로, 기능적으로 신체의 근육과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신체를 통해 표현되는 움직임 자체가 곧 무용예술 활동의 목표가 된다(박순자, 2009, 49).

신체는 의지전달의 가장 원시적인 수단이며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동물 중에서 개념적 상상능력을 가지는 유일한 동물이기 때문에 무용에서의 신체, 표현하는 신체는 단순히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 언어 그 이상의 표현으로 내면적 표현을 신체라는 도구를 통해 새로운 기호체계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안미아, 2004, 938).

반면, 무용의 유일한 표현 수단인 신체는 무용예술의 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무용이 매도되었던 가장 큰 이유 또한 신체성 때문이라는 아이러니(irony)가 있다. 이는 서구를 지배했던 이성 중심의 사고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무용은 인간의 살아 있는 몸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가 심미적인 대상으로서의 춤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서양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플라톤의 주지주의와 기독교의 내세사상과 같은 몇몇의 사상이 무용에서 나타나는 신체성을 더욱 강하게 배척하게 된 것이다. 이로인해 역사적으로 무용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근대의 청교도 정신은 춤에 대한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내며 춤추기를 금기하게 했다(제환정, 2004, 92).

우리나라도 역사의 흐름에 따라 각 시대별로 신체에 대한 사고가 달라져왔다. 고려시대의 문란했던 사회상은 조선이 개국되면서 유교사상을 받아들이고 신체에 대한 폐쇄적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무용예술에 있어서 신체는 살아있음에 대한 표현의 수단이자 그 전부이며 내면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고차원적인 매체이지만(김수진, 2015, 64), 현대사회에서 신체에 대한 인식은 아름다움이라는 외관적 미학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과거 철학자들은 춤에 대하여 평가절하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의미를 담지 않은 언어의 나열이 말장난에 불과하듯이 동기가 주어지지 않은 움직임은 단지 흔들기, 근육의 움직임, 몸의 경련에 불과하다는 생각에서였다(제환정, 2004, 97).

신체에 대한 편중된 시각은 무용 교육환경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왕이면 예쁜사람, 키 큰 사람, 날씬한 사람을 선호하는 성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 물론 종합예술인 무용에서 시각화를 무시할 수 없으나 외관중심의 사고에 편중된 무용표현 활동은 그릇된 예술관을 가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용의 미래지향적이고 광의적인 입장에서 생각 할 때, 외모, 외관 중심의 무용관은 무용예술이라는 보여지는 측면에서의 소극적인 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박순자, 2009, 48).

## 2. 신체에 대한 해부학적 기능 인식

오늘날의 다양한 무용인들은 신체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부학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것에 동의한다. 무용의 언어는 신체의 기교이며 훈련되지 않은 무용은 예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숙련된 무용수의 숙련된 기교를 기대하면서 춤을 추는 무용수는 테크닉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김말복, 2003, 60). 이는 무용이 신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표현되는 예술이기 때문인데 인간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부학, 생리학, 심리학, 역학 등을 토대로 하는데 해부학적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인간의 신체가 곧 무용의 소재가 되기 때문이며 신체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움직임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부학적, 기능학적 접근을 통해서 신체의 각 구성 단위들의 구조와 관절에 대해서 이해하게되고 움직임과 연결되는 근육이나 관절의 가동범위 등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움직임의 의미와 유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무용수가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외관상 보이기 위한 움직임을 표현하다보면 신체 부위의 손상이나 상해가 반복될 수 있고, 고질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신체의 표현을 위해서는 인체의 구조 및 배열, 각 부분의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움직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즉, 표현을 위한 신체는 정확한 움직임, 동작을 구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기능을 섬세하게 조절하면서 표현을 위한 다양한 테크닉,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움직임을 창출한다.

### 3. 신체의 상징적 요소

F. Delsarte는 인간 신체를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하도록 기본 원리와 변칙을 체계화하였는데 신체의 기능에 따라 정신의 기능이 작용하면서 정신행위가 작용하며 각각의 몸짓이란 어떤 것의 표현이며, 사고, 감정, 느낌, 몸짓이 의도와 동기로부터 발생하여 선행된다는 것이다(박순자, 2001, 79). 이에 대해 박순자는 인간의 사상, 감정이 시간성과 공간성에 따라서 인간의 신체가 조절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신체의 상징적 의미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표출되며 복합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무용이란 사람이 말하는 생생한 표현이기 때문에 인간 신체의 각 부위가 갖는 상징적 성격은 보편적인 인간의 생활 감정이 드러나게 된다.

신체의 상징적 성격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였는데 보통 인간의 신체는 머리, 몸통, 하체로 나누게 된다. 머리 부분은 일체의 정신적 사고 기능으로 정신과 지적인 측면을 상징하며 몸통부분은 감정의 욕구적 측면을 상징한다. 하체 부분은 활력의 표출을 상징한다는 것이다(박순자, 2001, 79). 반면, 고바야시 신지는 신체각부를 두부, 견부, 흉부, 복부, 요부, 사지 등과 같은 여섯 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다.

두부(頭部)는 지적인 상징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두부가 가지는 생리적, 사회적 조건에서 형성되는 습관성이 두부 즉 머리, 뇌의 지적 요소의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머리라고

표현하는 두부는 두개골 내에 대뇌가 있고 지적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생리적 조건에서 형성된 두부의 상징적인 성격은 사회생활이라는 측면에서도 살펴 볼 수 있는 한 집단의 머리,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며 가정의 식탁에서 연장자나 손님에게 생선의 머리가 있는 부분을 대접하는 순간에도 두부를 중요시하는 것과 그 바탕에 깔린 지적 요소의 존재가 엿보인다. 지적표현의 제반요소에는 의지활동, 직선적인 기하학적 운동, 긴장감이 있는 운동이나 표정이 있는데 지적인 표현은 이성적이며 긴장감이 있는 표현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고바야시 신지, 2001, 73).

견부(肩部)는 어깨로 의욕적인 상징성이 존재한다. 의욕적인 상징성은 생활에서 체험으로 견부의 표정을 관찰하여 얻은 성격으로 잠재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의욕이란 어떤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과정의 활동요소를 말하는데 어떤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방향, 양, 속도라는 세요소가 존재하게 된다. 견부의 표현에서 방향과 양과 속도의 요소가 애매하게 표현된다면 의욕을 명확하게 표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흉부(胸部) 즉 우리의 가슴에는 정동적인 상징성이 존재한다. 이 정동적 상징성은 흉부가 가진 생리적 조건에 의해서 관념적으로 형성된 습관적 성격으로 쉽게 우리가 흉부를 마음이 존재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흉부에 위치한 심장이 인간의 생명활동을 상징하며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적인 흉부의 활동에서는 회로에타이라는 감정의 질적인 요소와 이 질적 요소를 크고 작게, 강하고 약하게 표현하는 양적 요소로 그 깊이를 나타내고 있다.

복부(腹部), 배라고 부르는 복부는 욕망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이 욕망적 상징성격도 생리적 조건에 의해서 관념적으로 형성된 습관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는데 복부에는 소화기관, 저장기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리적 조건으로부터 느끼는 감각이 욕망적 상징성을 복부에 형성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욕망적 표현을 위해서는 용적감과 중량감을 고려해야 하는데 용적감은 표현적인 강조에 의해, 중량감은 긴장에 의해 표현되어야 함으로 표현기교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요부(腰部)는 욕정적 상징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욕정적 상징성은 생리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습관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고바야시 신지가 지칭하는 요부는 넓은 의미에서 둔부 즉 엉덩이를 포함하고 있는데 요부에는 생리조건으로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개념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요부에 대한 관념을 저하시키고 품위가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일상생활에서 될 수 있는 한 요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왔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상으로 욕정적 상징성을 가진 요부에 대해서는 될수록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신체운동에서 요부운동이 빠지면 신체의 균형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지(四肢)는 우리의 팔과 다리로 신체 각부의 모든 상징적 성격이 존재하면서 이 상징적 성격을 보조적인 입장에서 보좌하고 있다. 즉, 신체 각부의 상징적인 표현을 도와주면서 표현성격을 한층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 무용의 표현에서 사지가 주가 될 수 없는데 사지의 움직임이 무용표현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던 것이다. 무용하는 사람이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영역까지 도달하려면 끊임없는 연습이 요구된다. 모든 각부의 표현을 돕기 위한 보조적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이 많은 연습과 연구가 필요하며 사지의 도움으로 완벽한 표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무용예술을 통해서 전달을 시도할 때 우리는 보편성과 개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데 신체의 상징적 성격은 보편성의 요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 만약 신체의 상징적 성격이 개별성으로 이루어져서 신체표현이 이루어진다면 무용예술은 만인을 위한 선물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일방향의 전달에 멈춘 선택적 일부계층을 위한 예술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 4. 신체의 범형적 요소

무용을 표현함에 있어 형상을 만들고 시간과 공간을 형성하는 기초요소인 신체는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신체표현을 통해 무용공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무용수가 움직임의 역동과 성질의 변화를 통해서 공간을 그려내고, 시간을 그려내며 표현의 영역을 확장시키게 되는 것이다. 즉, 무용을 하는 신체, 표현하는 신체는 움직임을 통해서 무용의 본질적인 형상을 그려내고 그 본질적인 형상은 그 시간과 그 공간에 하나의 신체가 어떠한 힘의 작용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장정운, 2004, 118). 즉 신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미, 미적 요소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이 신체의 형태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고대 그리스시대로 이미 신체의 법적 범형은 8등신이라고 여겨져 왔으며(고바야시 신지, 2001, 70) 이러한 인식은 현재에도 팽배하다. 미적 범형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취향에 따라 그 시대감각에 맞는 범형이 선택되며, 다양한 요소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미적 범형은 황금률에 의해 계산된 회화적 평면측정이 기준이 되는데 입체적인 인간의 신체를 측정하는 골격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바야시 신지, 2001, 71). 즉 신체의 미적

법형요소는 입체적인 면에서 골격요소와 근육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요소가 조화로운 상태에서 미적 법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미적 법형의 특징은 미적 법형이 외면적 요소이기도 하지만 내면적으로도 충실해야한다는 정신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현함에 있어 신체의 미적법형이 요구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신체의 표현을 조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다양한 아름다움이나 메시지를 표현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무용예술에서 신체의 미적 법형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긴 하다. 무용을 하는 모든 신체가 미적 법형에 따를 수는 없다. 그렇다고해서 미적 법형에 맞지 않는 사람은 무용수로서 부적합하다고도 할 수 없다. 미적 법형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신체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표현하는 신체로서의 미적 법형은 표현에 있어서 좀 더 선별된, 메시지 전달에 더욱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로서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 IV. 성경의 관점에서의 신체

##### 1. 신체에 대한 인식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셨다. 인간의 형상은 살아있는 인격체의 형상으로 뼈와 살과 근육, 내부기관까지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라는 도구는 신체 표현이라는 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 무용수의 신체와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무용을 하는 무용수들의 몸, 동작, 표현 등의 자태, 그리고 그 환경에는 많은 유혹거리가 있다(박순자, 2004). 그러나 본질적으로 표현하는 신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창 1:1)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인해 뼈와 살이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다. 이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신체에서 생명이 시작되었고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지속적으로 신체를 통해 표현을 한다. 인간의 신체가 없으면 생명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삶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는 생명과 삶을 떼어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이종록, 2006). 즉, 껍데기에 불과한 신체가 아니라 생명활동의 주체로서의 신체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Johannes pedersen은 영과 몸은 너무나도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연합된 것이며 몸이란 외면적인 형태를 가지고 드러나는 영이라고 하였다. 즉, 창조의 시점부터 우리는 몸과 영이 하나가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실레스터 스노우, 2002, 34).

## 2. 구약에서의 몸

몸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통합적인 존재로 인식하였다. 히브리인들은 몸은 영에게, 영은 몸에게 영향을 미치고 마음은 몸에게, 몸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며 히브리어로 마음, 호흡, 영, 살, 뼈와 같은 단어들이 서로 바꾸어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는 몸으로 표현되는 활력 넘치는 언어로 표현하였다. 즉 육체는 갈망할 수 있으며, 호흡이 찬양할 수 있고, 뼈가 선포하며, 기뻐하고 전율하는데 영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실레스터 스노우버, 2002, 36).

표현하는 신체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신체적인 기능 중 하나는 호흡으로 움직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서 호흡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호흡은 인간의 신체의 생명활동이며 표현의 요소로서 호흡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호흡하시도록 우리는 내어 드리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3절에 따르면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뼈는 내면 가장 깊은 곳의 상태를 표현하면서 기쁨으로 부르짖거나 애통으로 울부짖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4장 19절을 통해서 ‘내 창자여, 나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친다’라고 기록하였는데 창자는 두려움뿐 만 아니라 연민을 표현하는 것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 깊은 곳이 창자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비통한 감정들은 신체의 복부, 간과 같은 몸통의 중심 부위에서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우리의 내적인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 얼굴, 콧구멍, 신장, 심장, 두 손이나 몸 전체를 포함해서 신체의 모든 지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 교회가 악한 것과 연관지어 생각했던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몸짓 인 것이다

시편 84편 2절에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몸은 절대로 영혼이 없는 육체에 그칠 수 없으며, 마음 또한 몸에서 분리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마음과 영혼은 몸의 일부이다(실레스터 스노우 39).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의 아내를 삼으므로 그들이 육체가 되었으며 그러므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었다고 나타내고 있는데 부패한 이들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의 신체가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3. 신약에서의 몸

신체에 대한 신약에서의 관점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죄인인 인간을 구하기 위해 영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체로 다시 보내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이다. C.S Lewis는 이에 대해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매체가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의 신체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린도전서 6장 19)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몸을 영과 분리하지 않고 몸과 육으로 구분하였다. 몸은 해부학적 신체성을 가리키고 육은 우리의 욕심이 작용하는 인간신체성을 가리키는데 몸은 영과 분리되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박효정, 2015, 45). 또한, 신체를 존중해주고 우리의 신체를 하나님이 임재 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

### 4. 성경에 기록된 신체의 상징적 요소

성경에는 인간의 몸을 지칭하는데 약 140여개의 용어가 기록되어 있으며 신체 각 부위별로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부여하고 있다. 크게는 머리, 몸통, 다리, 전신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신체의 기관은 다중적 상징의미를 갖게 된다. 즉 인간의 신체가 소통의 매체라는 의미에 맞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상징적 행위와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시는 행위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또한 생활의 조건, 환경적 조건, 생리적 조건, 사회적 조건 또한 포함하고 있다.

머리부분은 귀, 눈, 머리, 머리카락, 목, 얼굴, 입, 코, 혀와 같은 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부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예배의 상징성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말씀하시는 분부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귀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요한계시록 2장 11절 등)”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이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열왕기하 19장 16절)”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의 음성을 듣는 기관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히 네 종이 되리라(민수기 1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종을 표시하는 기관이자 에스겔서 16장 12절과 같이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 기관으로 기록되어 있다.

눈에 대해서는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외부를 인식하는 감각 이외에도 물욕을 일으켜 죄를 짓게 하는 욕망과 죄를 초래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이로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8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우리를 범죄케 하면 빼어버리고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기관이며 선한 눈, 악한 눈 등과 같은 표현으로 심성과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고 기록된 바와 같이 으뜸을 상징하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역대상 12장 19절의 말씀처럼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끊어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머리를 친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머리칼은 여성의 용모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누가복음 21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목은 생명을 결정짓는 기관이자 교만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3절에 교만함을 ‘목이 곧다’ 라고 비유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얼굴은 인격적 주체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심리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얼굴을 돌이킨다’라는 말로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코는 생명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연관된 기관으로 표현되면서 호흡은 사람의 다양한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다. 몸통부분에는 가슴을 들 수 있는데 가슴은 목에서부터 복부 사이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하고, 품이라고 기록되기도 하였다. 가슴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애통함과 슬픔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약자를 보호하며 여호와와 사랑을 입은 자가 안전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배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부위로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이미 모태에 우리는 짓기 전에도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배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장기를 품고 있는 부위이며, 악을 상징하고 있다.

사지로는 손과 손가락을 들 수 있는데 손은 인간의 손에 부여한 다양한 용도와 의미들이 가지고 있는데 맹세, 소유, 지배, 공격, 송축, 능력, 기도, 축복, 범행, 노동, 구제, 위협, 징벌, 협력, 조롱, 회개, 심적고통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다리는 신을 벗는 것으로서 세상과의 구별, 약속의 표시 등을 상징하고, 발을 구르는 것은 기쁨이며, 밟는다는 것을 통한 구속과 훼손의 의미도 담고 있다.

허리는 인체의 중간 부분으로 육체적 힘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데 허리가 상징하는 것은 자손의 번식(창세기 46장 22절)과 준비자세(누가복음 12장 35절), 징벌과 낙담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전신에서 몸은 예의를 표시(창세기 18장 2절)하는데 사용되면서 생명을 탄생시키고(창세기 46장 22절)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뼈와 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데 영혼과 대비되는 존재로서의 몸 전체를 뼈로 대입하기도 하며 동족(창세기 29장 14절), 고난(시편 6장 2절), 정복, 축복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피는 인간과 동물의 생명 그 자체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피는 속죄와 죄사함, 사죄, 징벌, 언약과 징벌, 영생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듯 성경에서 제시된 신체에 대한 정립은 추후 다시한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성경에 기록된 신체의 상징적 성격은 하나님과 나라는 이중적 움직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5. 성경에 나타나는 신체적 움직임

성경에는 약 8가지 정도의 신체적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각각 머리, 눈, 무릎, 손, 엎드림, 일어남, 호흡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지위와 명예의 회복을 들 수 있는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할 때 머리를 들고 전직이 회복된다고 하였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이 임할 때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기록한 것에서 공포와 두려움에서 고개를 들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고 하고 있다.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경의를 표하여 몸을 굽히다. 머리를 숙여 절하다, 구부리다의 의미를 갖는다(디럭스 바이블, 2014).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슬픔과 애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눈을 든다는 것은 절망적이거나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시각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시편 121장 1편)”,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디아(시편 123장 1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희망적인 자세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높이를 낮추는 현상학적인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나신보다 높은 이에 대해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것이며, 간절한 기도의 간구이자 순복하는 것이다.

손을 든다는 것은 의지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사용되며, 반대로 백성을 축복할 때, 아론이 손을 들었던 것과 같이 축복의 의미를 함께 갖는다.

엎드리다라는 것은 스스로 절하고, 몸을 구부리며 땅에 엎드린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사하*”

라는 단어에서 유지되고 있다(디럭스 바입르, 2014). 었드린다는 것은 무릎을 굽는다는 것의 더 깊은 의미로 더욱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어나다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과 같은 사명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에베소서 5장 14절의 영적 각성 등 성장과 도전, 생명력을 나누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숨을 쉬는다는 것은 아직 생명이 없던 인간의 형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서 존재하게 된 인간의 움직임의 시작이자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신체의 움직임 또한, 상반된 의미, 이중적,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무용에서의 신체는 도구이며, 목적이자 본질이다. 이는 선교무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아직 무용전공자가 부족한 실정에서 선교무용은 아직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가 많아서 대체적으로 믿음의 열정이 분명하고 강한 반면 무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미처 준비되지 못한 선교 무용수가 메시지와 관련 없는 산만한 움직임을 한다거나 지나치게 보여주기 식의 움직임에 치중하여 오히려 예배의 방해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진 에드워드 비이스는 좋은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내외면적 요소의 조화, 형식과 내용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는데(1994, 64) 아직까지 선교무용에서는 내면적 요소와 외면적 요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미비한 상황이다.

선교무용을 표현함에 있어 외면적 요소를 구조화하고자 연구하던 중 연구의 범위를 표현하는 신체로 제한하여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이에 현대사회에서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인 무용의 관점에서의 신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경에 기록된 신체에 대한 기록, 신체 움직임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선교무용을 표현함에 있어 표현하는 신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선교무용의 표현을 위한 외면적 요소로서의 표현하는 신체에 대한 인식은 외모지상주의, 쾌락주의, 소비주의, 심미주의와 같이 보여지는 측면에서의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용에서의 신체를 인격체로 인정하며 외관 중심의 심신이원론적 신체적 가치관이 인간미 중심의 심신일원론 가치관으로 추구되어야 하는데 몸은 절대로 영혼이 없는 육체에 그칠

수 없기 때문에 신체와 영혼은 하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선교무용의 표현을 위한 신체의 상징적 요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중의 상징적 성격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무용의 관점에서 신체의 상징적 요소는 인간 대 인간의 소통을 위한 표현임으로 보편적 상징성격의 의미를 드러낸다. 반면 성경에 기록된 신체의 상징적 성격요소는 그 대상이 인간과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상징적 성격요소도 반영하게 된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상징적 성격요소가 좀 더 다양하고 구체화 되어 있으며, 기록된 내용 그 자체로 무용표현을 위한 형식이나 소재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무용에서 나타나는 신체의 상징적 요소와 이를 포함한 성경과 신앙적 통찰을 통한 표현하는 신체의 성경적 상징 성격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표현하는 신체의 범형적 요소에 대한 성격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인간의 신체는 영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신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체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7등신, 8등신이라는 신체비율을 따지고, 키와 몸무게를 기록하며 신체의 범형요소를 추구한다. 이 범형적 요소는 필수가결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요소일 수도 없다. 선교무용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움직임의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다. 또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이사야 43장 21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으로 찬양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이유가 명확해진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체를 통한 표현으로 누구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곧 선교무용의 표현을 위한 신체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외면적 요소로서의 표현하는 신체는 외면적 활동과 더불어 내면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면적 요소로서 표현하는 신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표현되는 형식은 그 의미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외면적 요소에 대한 선교무용만의 특별한 형식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외면적 요소를 창출하는 주체인 선교무용수가 성경에 근거한 타당한 학문적 근거를 정립하지 못한다면 무분별한 외면적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이는 예배의 방해요소로 작용될 뿐이다.

다섯째, 이상의 네 가지의 결론을 토대로 선교무용의 표현을 위한 외면적 요소 중 표현하는 신체는 수직의 개념으로 구조화되기 보다는 수평적 개념으로 각각의 요소에 대한 학문적 정립과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동일한 외면적 요소 중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신체를 통하여 표현을 할 때 외면적 요소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현하는 신체에



대한 각 요소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구조화 될 수 있는데 성경에 기반한 각각의 요소 즉 성경에 나타난 신체에 대한 인식과 표현하는 신체의 상징적 성격들, 성경에 기반한 신체의 미적 범형이라는 각각의 요소는 순차적 개념 혹은 순환의 개념이기보다는 각각의 요소들을 수평적인 구조로 선별하고 구체화 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아직 학문적 연구가 미흡한 선교무용의 외면적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지길 바라며 성경에 근거한 표현하는 신체, 그 신체를 통해 더욱 풍부하게 표현되는 선교무용의 외면적 요소로 인하여 더 깊은 신앙의 메시지가 표현됨으로 복음의 도구로서의 선교무용이 더욱 활발하게 사용되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개역개정 굿모닝바이블. 서울: 아가페
- 김말복 (2003). 『무용예술의 이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순자 (2004). 『21세기 기독교적 무용의 접근』. 서울: 도서출판 금광.
- 박순자 (2001). 『좋은 춤 만들기』. 서울:프레이즈
- 이정학 (2005). 체육과 스포츠의 철학적 탐구. 서울: 대한 미디어.
- 이종록 (2006). 『성서로 읽는 디지털 시대의 몸 이야기』. 서울: 책세상.
- 제환정 (2004). 『문외한씨, 춤 보러가다』. 서울: 시공사.
- 고바야시 신지 (2000), 『무용미학』. 서울: 현대미학사.
- 실레스터 스노우버 (2002). 『몸으로 드리는 기도』. 서울: IVP.
- 진 에드워드 비이스 (1994).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서울:나침반.
- 한스 로크마커 (2011), 『예술과 기독교』, 서울: IVP.
- 박순자 (2009). 『무용의 미적 가치관 변화의 필요성』. 무용예술학연구:제28집 가을
- 안미아 (2004). 『최초 인류 무용의 진화론적 해석을 통한 인류 무용에 대한 인식 고찰』, 한국 체육학회지
- 이정학, 신현군 (2008). 현대사회에서의 몸의 지위.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6권 제4호 pp.305-318.
- 김수진 (2015). “기독교 예술관을 적용한 무용예술의 방향”.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함성애 (2005). “무용의 기독교에서의 기능과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선교무용 표현을 위한 외면적 요소의 구조화 - 표현하는 신체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수진
		논찬자 (소속)	양재진 (숙명여자대학교)

본 논문은 “선교무용의 표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신체’에 초점을 두어 이론적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앞으로 선교무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표현이라는 것은 그 주체와 객체 상호간의 내면을 드러내거나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신체는 무용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자 목적이며 본질이기에 선교무용에서 외면적으로 표현되는 신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는 무용이라는 큰 틀에서 신체에 대한 관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습니다. 첫째 현대사회에서 신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대상과 주체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취해서라도 인정받기 위하여 신체를 상품화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위하여 SNS가 폭발적으로 노출되고 있음도 바로 인간의 신체를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쾌락주의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둘째, 일반무용에서 신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무용의 정의가 소통을 위한 표현의 수단이기엔 신체는 외면적인 형식과 운동으로 무용을 시각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해 해부학적 지식을 갖고 있을 때에 정확한 움직임과 섬세한 테크닉의 표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고, 신체에 대한 상징적인 요소를 알고 있을 때에는 각 부위의 움직임에서 무용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는 정신적 사고의 기능으로 지적인 측면을 상징하며, 몸통은 감정적인 욕구 측면을 상징하여 회노애락이라는 감정의 질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체부분은 활력의 표출을 상징하는 것으로 완성된 표현을 위함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신체의 법형적 요소를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황금비율의 신체로 무용을 보다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성경에서 신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표현하는 신체 중에서 호흡이 가장 필수적이며 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신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에 우리의 신체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체의 용어가 140여개 기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신체의 움직임도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선교무용은 일반무용과 달리 외면적인 신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내면에 영적인 부분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신앙고백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논문의

---

저자와 같은 의견으로 선교무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며, 선교무용에 동참하고 있는 예배자들은 신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움직임을 표현 할 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와 선교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자각시켜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체를 넘어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외면적 요소와 내면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선교무용에 대한 이론적인 확립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